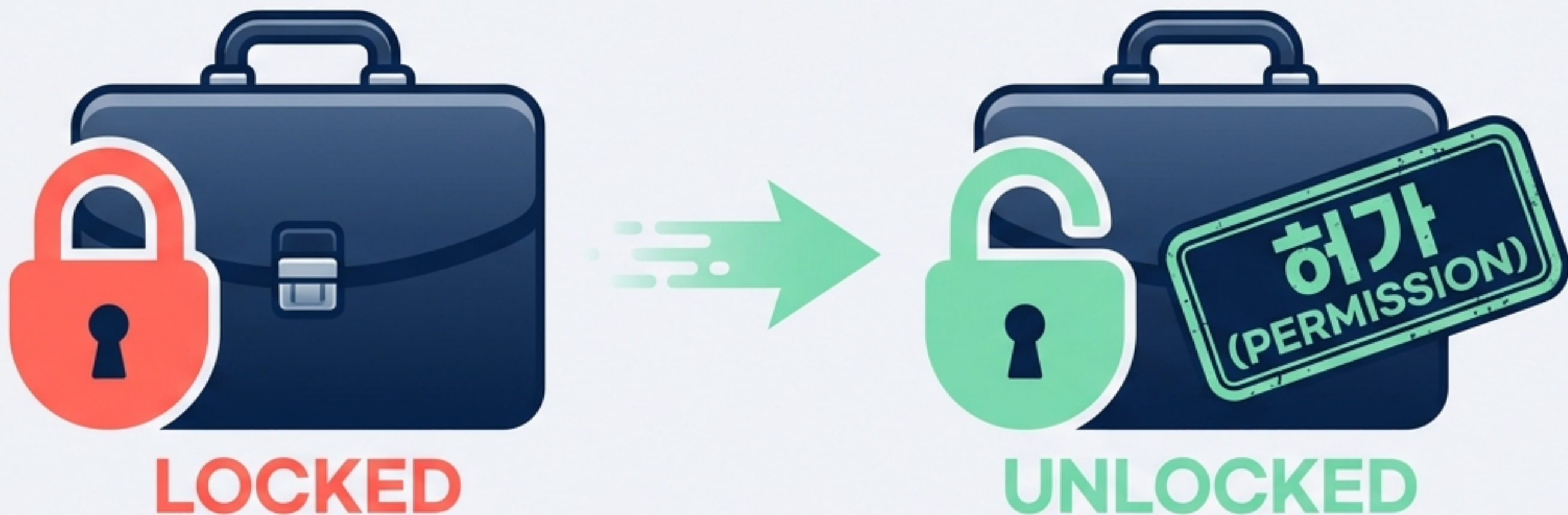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합법적 시간제 취업 완전 정복 가이드

안전한 유학생들과 아르바이트를 위한 공식 내비게이션



D-2 / D-4 비자 = 학업 전용 (취업 불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원칙은 '불가'입니다.

D-2(유학) 및 D-4(어학연수) 비자는 학업을 위한 비자이므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 '사전 허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대학생 수준의 아르바이트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단순노무' 활동만 가능하며, 전문 직종이나 위험 직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가능 분야 (Allowed)



카페



편의점



음식점



전공 관련
연구/현장실습



제한 분야 (Restricted)



건설업/제조업



배달대행/라이더



대리기사



미성년 외국어 교육



도급/파견/알선

[제한 분야 상세] 건설업, 제조업, 택배,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핵심 공식: 한국어 능력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합니다.



10 Hours



**Up to
30 Hours**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증명하면 허용되는
근무 시간이 2배에서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주말 근무 제한이 사라집니다.

언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단 1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D-4 어학연수생: 허용 시간 가이드



입국 후 6개월 체류 -> 신청 가능



(최대 1곳)

반드시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근무 장소는 최대 1곳으로 제한됩니다.

[한국어 능력 요건]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미충족 시

10시간 (주중/주말 포함)



충족 시



20시간 (인증 대학 : 주말 포함 25시간)





D-2 학부생: 허용시간 가이드



(사전 체류 기간 조건 없음)



(최대 2곳)

입국 후 사전 체류 기간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요건] 1~2학년: TOPIK 3급 (또는 사전평가 61점) / 3~4학년: TOPIK 4급 (또는 사전평가 81점)

미충족 시

10시간 (주중/주말 포함)

충족 시

주중 25시간 (인증 대학 30시간)
+ 주말 및 방학 시간제한 없음



주의해야 할 숨은 규칙들 (The Fine Print)

이 조건들을 간과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초과학기생 취업 불가: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 초과학기생은 시간제
취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2. 합산 시간 엄수:
2곳에서 일할 경우, 두 곳의
근무 시간을 합산한 총
시간이 본인의 허용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입생(D-2) 제한:
입학 후 첫 학기에 취업을
신청한 학생은 허가 기간이
최대 '1학기'로 제한됩니다.

합법적 아르바이트를 위한 4단계 필수 절차

반드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한 후, '최종 허가'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반드시 기재)

2. 대학 확인서 발급:

소속 대학 담당자에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및
서명 받기

3. 출입국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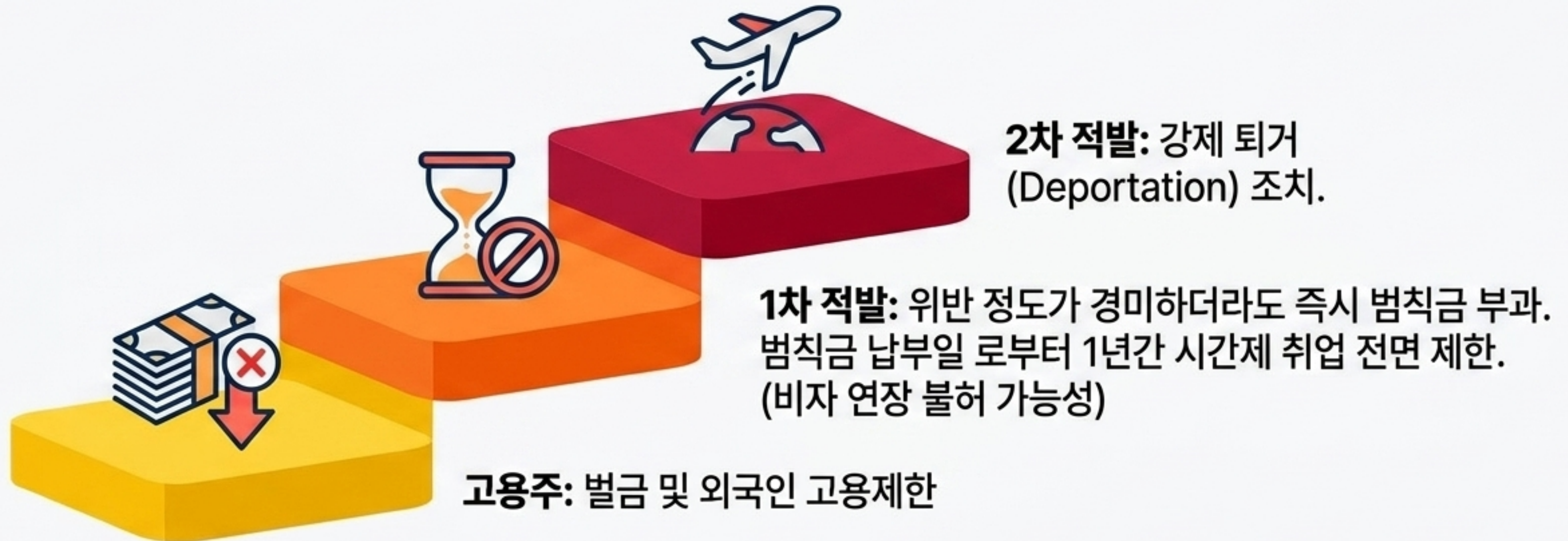
하이코리아(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4. 허가 완료:

여권에 허가 스티커를
부착받거나,
온라인 허가서 출력 후
근무 시작

허가 없이 일했을 때의 대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벌금과 외국인 고용 제한이, 유학생에게는 치명적인 비자 제재가 가해집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의 대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규정된 시간이나 장소를 어기면 단계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허가'는 무제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차 적발

엄중 경고



2차 적발

남은 유학 기간 전체 동안
시간제 취업 영구 불허



3차 적발

2차 적발 이후 불허 대상임에도
다시 적발될 경우,
유학(D-2/D-4) 자격 즉시 취소

절대 금지 구역 (Zero Tolerance)

다음의 사항들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유학 생활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는 중대 위반입니다.

1. 건설업 불법 취업: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예외 없는 즉시 출국 명령.

3. 미래 취업 제한: 불법 취업 기록이 남으면 졸업 후 구직 비자(D-10)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2. 형사 처벌: 허가 없이 일하거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3가지 황금 규칙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당신의 유학 생활을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1. 일 시작 '전'에 허가받기:
일단 일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2. 신청은 허가가 아니다:
출입국에 서류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최종 허가'를
확인한 후 출근하십시오.



3. 허가 조건 엄수하기:
허가받은 시간과 장소
내에서만 근무하십시오.

당신의 안전한 유학 생활을 응원합니다.